

‘敗퍼스’는 이제 그만 … 승점 사냥 ‘절치부심’

<편>



페퍼스는 지난달 30일 광주 페퍼스티디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최종전에서 GS칼텍스를 세트스코어 3-1로 승리하며 연패를 끊었다.



홈에서 기세를 잊지 못한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원정길에서 새해 첫 ‘승점 사냥’에 나선다.

페퍼스는 6일 오후 7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GS칼텍스와 진에어 2025-2026 V리그 4라운드 맞대결을 치른다.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경기다.

2025년 마지막 경기였던 GS칼텍스전에서 9연 패를 벗어났던 페퍼스는 지난 2일 IBK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3(16-25 26-24 17-25 20-25)으로 패하면서 분위기를 살리지 못했다.

새해 첫 홈 경기에서 리시브 불안과 범실이 재발하며 승부처에서 힘이 빠졌다.

이날 경기에서 조이가 25점, 박은서가 19점을 만들면서 공격을 이끌었지만 각각 8개와 7개의 범실도 기록하며 승부처에서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반복됐다.

1세트부터 리시브가 흔들리며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졌고, 2세트 드리브 접전 끝에 한 세트를 만회했

페퍼스, 오늘 GS칼텍스와 원정전 9연패 끊었지만 새해 첫 경기 패배 리시브 불안·잦은 범실에 흐름 끊겨 분산 공격·수비 집중력 높이기 관건

지만, 3~4세트 다시 상대 블로킹과 높이에 막히며 고비를 넘지 못했다.

기업은행전 패배로 다시 한번 과제를 확인한 만큼, 이번 원정에서 승점을 쟁겨 흐름을 되살리는 게 중요하다.

GS칼텍스는 현재 페퍼스보다 두 계단 앞선 리그 4위에 자리하고 있다.

직전 맞대결(12월 30일 홈경기)에서는 페퍼스가 GS칼텍스를 3-1로 꺾고 길었던 연패를 끊었고. 당시 해법이 ‘분산 공격’과 ‘수비 집중력’이었다는 점이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관건은 두 가지다.

첫째는 리시브 안정이다.

기업은행전처럼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 루트가 좁아지고, 상대 블로킹에 간하는 장면이 반복

된다. 서브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강서브를 앞세워 GS칼텍스의 리시브 라인을 훈들고, 상대 리시브가 흐트러졌을 때 나오는 찬스 볼을 확실히 득점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둘째는 승부처 범실 관리다.

득점이 나오다가도 범실로 흐름이 끊기면 경기의 흐름을 잡기 어렵다.

GS칼텍스는 실바를 중심으로 공격 의존도가 높은 만큼 레이나·유서연과 같이 날개 쪽 공격을 페퍼스가 블로킹으로 차단하고, 뒤이어 디그로 한 번 더 연결해내는 수비 집중력이 필요하다.

또한 가지 변수는 전력 윤용이다.

페퍼스의 살림꾼 고예립이 손가락 탈골로 코트에서 이탈한 가운데 신인 정솔민이 후방을 받치고 있지만, 그만큼 수비 안정과 로테이션 윤용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공격에서 시마무라 속공과 박은서의 퀵오픈으로 상대 블로킹을 분산시키는 게 핵심이다.

리시브가 버텨준다면 조이의 후위 공격까지 활동되면서 공격 흘로가 넓어지고, 이때 승부처 범실을 줄이면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페퍼스가 GS칼텍스 원정에서 승점 재가동에 성공할지 기대가 쏠린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K리그1 승격 목표 원팀으로 뛰겠다”

전남드래곤즈 박동혁 감독 취임…최성환 수석코치 등 스태프 구성 완료

전남드래곤즈의 박동혁(사진) 감독이 취임식을 갖고 2026시즌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전남은 5일 광양제철소 포스코 교육관에서 구단 임직원 및 프로선수단, 유소년 코칭스태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7대 감독인 박동혁 감독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송중한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한 취임식에서 박동혁 감독은 “감독 인생을 걸고 팬들에게 기쁨을 주고 지역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명문 구단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또 “지난 시즌 좋은 자원들이 많고 초반 분위기도 좋았지만, 뒷심 부족으로 6위에 그치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고 선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원팀으로 K리그1 승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승격을 다짐했다.

박동혁 감독은 지난 시즌 팀을 이끌었던 주축 멤버로 중심을 잡고, 새로운 색을 입히겠다는 구상이다.

전남은 발디비아와 호난, 르본 등 외국인 공격 수와 함께 최봉진(GK), 유지하(DF), 윤민호

(MF), 정지용·하남(이상 FW) 등 주요 자원을 지었다.

여기에 지난 시즌 일대 선수로 활약했던 최한솔(MF)을 완전 영입하고, 김범수(FW)와 조영광(DF)을 임대 영입했다.

또 강신명(DF)과 이준희(GK)를 자유영입했고 선수대에서 활약한 송호(DF)를 우선 지명 선발하면서 새 피를 수혈했다.

‘박동혁호’ 구성도 완료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새로 인선된 코칭스태프 및 지원스태프도 발표됐다.

2020년 충남아산에서 박동혁 감독을 보좌했던 최성환 코치가 수석코치로 선임됐다. 그는 대한축구협회 전임지도자, 충남아산FC 코치, FC아브릴(독립구단) 감독 등을 지냈다.

또 최재수 코치(전 강원·부산 코치, K리그 TSG위원), 신학용 골키퍼 코치(전 안산·수원 코치), 김성준 피지컬 코치(전 라오스 대표팀 코치)가 전남 승격에 함께한다.

최민기 의사팀장, 노경우 트레이너, 박상옥 장비사가을 시즌에도 지원스태프로 역할을 맡으며 김지원 트레이너, 김서기 분석관, 이백한 통역사



가 새로 합류했다.

한편 3일부터 광양에서 1차 동계훈련을 시작한 전남은 오는 10일 태국 방콕으로 이동해 2차 동계 훈련을 진행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갑수 광주시 체육회장

“올 전국체전 10위권 목표 선수 육성·선발 시민 생활체육위한 공공 체육관 개방 확대”

광주시체육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 스포츠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달린다.

시체육회는 ▲엘리트·학교체육 경쟁력 강화 ▲시민 참여 확대와 균형 있는 체육복지 실현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시설 운영 ▲2028 전국체전 성공 개최 기반 조성 등 5대 분야 28개 과제 완료를 2026년 목표로 내세웠다.

시체육회는 지역 인재 발굴 육성과 종목단체 지원 강화를 통해 엘리트·학교체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체육 정립을 기반으로 제107회 제주 전국체전에서 10위권을 목표로 대표선수를 육성·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방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과학 지원도 확대한다.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시민 참여 확대와 체육 복지 실현에도 나선다.

특히 대한체육회 및 스포츠클럽 사업 등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5개 구체육회 주최 대회를 확대해 많은 시민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체육행정 혁신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AI 기반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투명한 예산·회계·계약 관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청렴·공정성 강화에 나선다.

특히 12월에 있을 민선 3기 체육회장 선거에 대비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을 위해 염주종합 체육관, 월드컵경기장, 무등야구장 등 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개보수와 개방 확대에 나선다.



회재, 인명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한 재난 및 안전관리도 강화해 시설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바탕으로 주기적인 점검도 진행한다.

2028 광주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도 본격화한다.

시체육회는 21년 만에 열리는 체전을 위해 ‘운영 분야와 시설 분야’로 나눠 전담 부서 구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종목별 선수 경기력 향상 프로그램 강화, 시민 참여 붐 조성, 경기장 시설 확보 및 개보수 등 단계별 준비에 나선다.

전갑수 체육회장은 “2028 광주 전국체전을 향한 중요한 도약의 해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체육회, 명품 스포츠도시 광주를 만드는 원년으로 삼고 임직원 모두 하나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송진호 전남도 체육회장

“체육인 육성 위해 전국대회 참가 지원

생애 주기 프로그램으로 평생 체육 정착”

전남도체육회가 ‘전남체육 80년! 도약하는 100년’이라는 비전 아래 체육으로 하나 되는 전남을 만든다.

도체육회는 전남체육이 걸어온 80년의 역사와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정책을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선진적인 체육행정 ▲세계로 응비하는 전남체육인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도민 화합 ▲전남체육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 강화를 2026년 핵심 목표 제시했다.

도체육회는 총회·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선진적인 체육행정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육행정 시스템 고도화와 회원종목 단체 평가·등급심의를 통해 선진적인 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임직원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과 청렴·인권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12월 지방체육회장 선거에 맞춰 매뉴얼 제작·배포, 사전 교육 등 공정명단한 선거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체육인 육성을 위해 동계체전, 전국체전 등 주요 전국대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고, 전문체육지도자 운영을 통해 경기력을 강화한다.

또 전략종목 집중 육성, 실업팀 창단 및 운영 지원,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 확대를 통해 전남 선수들이 세계무대에서도 역할을 펼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이어지는 선수 발굴·육성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활성화도 준비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클럽체육대회 개최, 지정·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스포츠체육 캠프 및 체육영재 캠프 운영을 강화한다.

전남스포츠과학센터 지원 확대와 과학적 훈련 시스템 고도화도 준비한다.



도체육회, 도생활체육대축전, 전남도지사 기, 전남도체육회장기 등을 통해 도민 누구나 체육활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호회리그 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일상 속 체육, 평생 체육’ 문화 정착에 나선다.

또 전남체육 80주년을 맞아 전남체육 CI 제작과 마케팅·홍보 강화로 전남체육을 재조명하고, 미래 비전을 알릴 계획이다.

체육인 복지 확대, 체육진흥 유공자 시상, 인재육성장학기금 운영을 통해 ‘행복한 전남체육인’ 실현에 나선다.

송진호 도체육회장은 “전남체육 8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공정한 행정과 체계적인 육성,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으로 전남체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